

# 실천을 기록하는 자세: 디자인 스튜디오가 기록한 10년

## An Attitude to Record Everyday Practices

김어진 Kim Eojin

일상의실천 공동대표 Co-founder, Everyday Practice

**요약** 디자인 스튜디오 일상의실천 10주년 기록 전시 <일상의 실천>은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스튜디오의 이름이자 전시의 이름이 된다.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 사이에서 발견한 실천적 태도는 어떤 형식의 기록 전시로 이어졌는지 살펴본다.

**Abstract** Everyday Practice, the 1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the design studio EverydayPractice, has become the exhibition title after adding a space to the name of the studio. This archival exhibition was born from the discovery of the pragmatic attitude between common nouns and proper nouns.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투고일 2023년 7월 8일

심사일 2023년 7월 11-25일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1일

Received Date 8 July 2023

Reviewed Date 11-25 July 2023

Accepted Date 1 August 2023

## 1. 기록 전시

전시는 사전적으로 한정된 공간에 특정한 의미를 진열함으로써 주제를 전달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한정된 공간은 공간의 구조와 영역에 의미를 두는 대신 특정한 의미를 진열하기 위한 계획된 공간에 초점을 맞춘다. 계획된 공간에서 관람객에게 사전하게 될 진열품은 주제를 전달하는 매개로 형식, 규격, 매체에 대한 기획자의 계획 아래에서 구성된다.

기록은 장소, 대상, 사물 등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별 및 보관하는 행위로, 이 또한 계획된 주제를 바탕으로 가치를 점검하고 선별 및 보관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기록은 전시와 다르게 특정 대상에게 진열품을 공개하거나 주제를 전달하는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다. 기록과 전시는 계획된 주제를 바탕으로 특정한 의미를 가진 것들을 한정된 공간에 선별한다는 유사성을 갖는 반면, 특정 대상에게 주제를 전달하는 행위에서는 차별성을 갖는다.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 사전에 따르면 기록 전시는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기록 원본이나 사본을 조직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확장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기록 전시는 기록과 전시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차별성에 의해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2013년 4월 설립해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일상의실천은 2023년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4월 무신사테라스 홍대에서 <일상의 실천> 전시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10년의 시간 동안 일상의실천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어떤 태도로 형식을 이어왔는지 선별된 결과물로 살펴보는 기록 전시의 성격을 갖는다.

## 2. 일상의실천

“일상의실천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디자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또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소규모 공동체다. 그래픽디자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평면 작업에 머무르지 않는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을 탐구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디자인 스튜디오 일상의실천을 자신들을 소개하는 문구이다. 이 문구 안에는 일상의실천이 디자인 스튜디오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줄곧 추구해 온 세 가지 주요 단어가 등장한다.

첫 번째 단어는 ‘실천’이다. 우리를 둘러싼 일상에서 발생하는 부조리한 현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디자인으로 발언하는 시민의 태도와 쉬지 않고 꾸준히 작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디자이너의 태도를



[그림 1] 녹색연합의 간행물



[그림 2-5] &lt;월간 워커스&gt;

함의한다. 이로써 용역업자 혹은 이미지 생산자만으로 일컬어진 디자이너의 의미로부터 탈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두 번째 단어는 '역할'이다. 앞서 '실천'에서 다룬 시민의 태도에 해당하며, 사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비영리단체의 협업자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갖는 발화자의 역할을 의미한다. 일상의실천은 인권, 환경, 노동과 관련한 비영리단체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디자이너와 협업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발견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도 주제에 부합하는 합리적 디자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10년이 넘는 시간



[그림 6] <그런 배를 탔다는 이유로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림 7] <PARTICLE>



[그림 8] &lt;텍스트-이미지 변환 장치&gt;

동안 함께 협업해 온 녹색연합의 간행물[그림 1], 2015년부터 현재까지 발간 중인 <일간 위커스>[그림 2-5]를 포함해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소수자들의 증언집 <수상한 책, 111>과 여성인권단체와 국제인권단체의 공식 간행물 등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또한 일상의 부조리한 현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디자인으로 발언하는 발화자로서 강정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끝나지 않은, 강정>,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그런 배를 탔다는 이유로 죽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그림 6], 불온한 시대에 무기력한 개인의 감정에 주목하는 <나는 왜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사례를 언급할 수 있다.

세 번째 단어는 ‘방법론’이다. 평면에 국한되지 않는 입체적 시각 언어와 매체 실험으로 생산하는 다각적 시각 언어를 의미하며, 이것은 ‘실천’에서 다룬 디자이너의 태도와 관련 있다. 일상의실천은 디지털 환경으로 제작되는 통상적 평면 그래픽을 포함해 물성을 활용한 시각 언어의 다양한 표현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해 왔다. 달 모양의 조형물과 드라이아이스를 촬영해 제작한 <2014 창원조각비엔날레: 달그림자>, 색종이와 하드보드로 장난감 모양의 카메라와 조형물을 제작한 <PARTICLE>[그림 7], 7개 의제를 상징하는 사물에 캠페인



[그림 9] <일상의 실천> 포스터 아카이브 월



[그림 10] <일상의 실천> 인쇄 간행물 섹션



[그림 11] <일상의 실천> 웹사이트 섹션

슬로건을 덧붙여 촬영해 제작한 <IT'S YOUR TURN>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다양한 매체 혼합 실험으로 디자인이 선보일 수 있는 확장된 문법의 시각 언어로, 문자와 도상의 예측 불가능한 호환을 타자기와 슬레노이드 모터로 실험한 <텍스트-이미지 변환 장치>[그림 8], 노인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미래 사회 부동산 시장을 키오스크와 유니티로 상상한 <골든실버타운>, 사람의 표정과 감정의 미묘한 상관관계를 페이스 리더와 조명등으로 표현한 <감정조명기구>가 이에 해당한다.



일상의실천은 스튜디오의 소개 문구에서 발견된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역할과 방법론을 증명하는 실천적 태도로 스튜디오의 과거와 현재가 일치하는지 의심하고 점검해 왔다. 이로써 다양한 매체로 기록된 실천적 태도는 <일상의 실천>에 진열되면서 기록 전시의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그림 12] &lt;굼든실버타운&gt;

### 3. 일상의 실천

일상의실천의 스튜디오 이름은 관형격 조사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보통 명사로 구성돼 있다. 일상에서 실천해 나간다는 단순한 이름은 중의적 맥락을 더해 실천의 구체성을 탐구하는 태도와 결부된다. 여기에 띄어쓰기를 제거하고 ‘일상의 실천’이라는 보통 명사의 조합에서 ‘일상의실천’이라는 고유 명사를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름에 던져진 실천적 태도의 정체성을 거듭 강조했다.

<일상의 실천> 전시는 10년 동안 고유 명사로 사용한 스튜디오 이름을 다시금 보통 명사로 환원하며, 일상의 실천은 무엇인가라는



[그림 13] <감정조명기구>



[그림 14] <My Soul Seoul>



[그림 15] &lt;살려야 한다&gt;

원론적 질문을 공유한다. 이것은 스튜디오의 역할과 방법론이 여전히 유효한지 과거와 현재의 일치성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스튜디오가 어떤 태도로 현재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과거의 답변이자 동시대 변화에 어떤 형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현재의 질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시는 포스터 아카이브 월, 인쇄 간행물, 웹사이트, 무빙 포스터, 설치로 총 5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포스터 아카이브 월은 10년을 대표하는 포스터를 다양한 관형으로 재구성한 섹션으로, 스튜디오의 그래픽 디자인 변천사를 다룬다. 평면 그래픽과 조형물 촬영이 주를 이루던 2013-2017년, 3d 모델링, 프로세싱 등 새로운 형질의 결과물이 등장하기 시작한 2018-2019년, 새롭게 등장한 요소들이 다층적 구성으로 결합된 현재까지 시기별로 변화하는 스튜디오의 디자인 방법론을 선형적 흐름으로 선보인다. 포스터 아카이브 월은 일상의실천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넘어 2010년대 한국 그래픽 디자인계가 어떤 움직임으로 현재에 이르렀는지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그림 9]

인쇄 간행물은 비영리단체 및 문화예술기관 그리고 단행본을 중심으로 실제 결과물이 나열된 섹션이다. 관람객은 결과물을



[그림 16] &lt;빨갱이&gt;

자유롭게 열람함으로써 저예산 프로젝트에서 효율적 결과를 도출한 사례부터 다양한 후가공 및 지질로 결과를 도출한 사례까지 실물만이 전할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대부분에 인쇄 간행물을 디스플레이 매체로 접하는 현대 사회에서 200여 권에 이르는 실물을 체험하는 경험은 대체하기 어려운 인쇄 간행물 고유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그림 10]

웹사이트는 그래픽 디자인으로 시작해 웹 디자인 그리고 웹 개발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한 결과물을 선보이는 섹션이다. 다섯 개의 아이맥(iMac)으로 구성된 웹사이트 섹션은 관람객이 웹사이트를 직접 체험하며 그래픽 디자인과 웹 디자인의 흐릿한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무빙 포스터는 고정된 이미지가 갖는 서사적 한계를 동적 매체로 전환해 구체적 서사를 전달하는 섹션이다. 이미지 프레임을 연결해 제작한 gif 형식의 무빙 포스터부터 3d 모델링과 프로세싱으로 제작한 mp4 형식의 무빙 포스터까지 그래픽에 담긴 서사에 따라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는 특성을 갖는다. 웹사이트와 무빙 포스터 섹션은 디자인 스튜디오가 10년의 시간 동안 동시대 변화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답변이 될 수 있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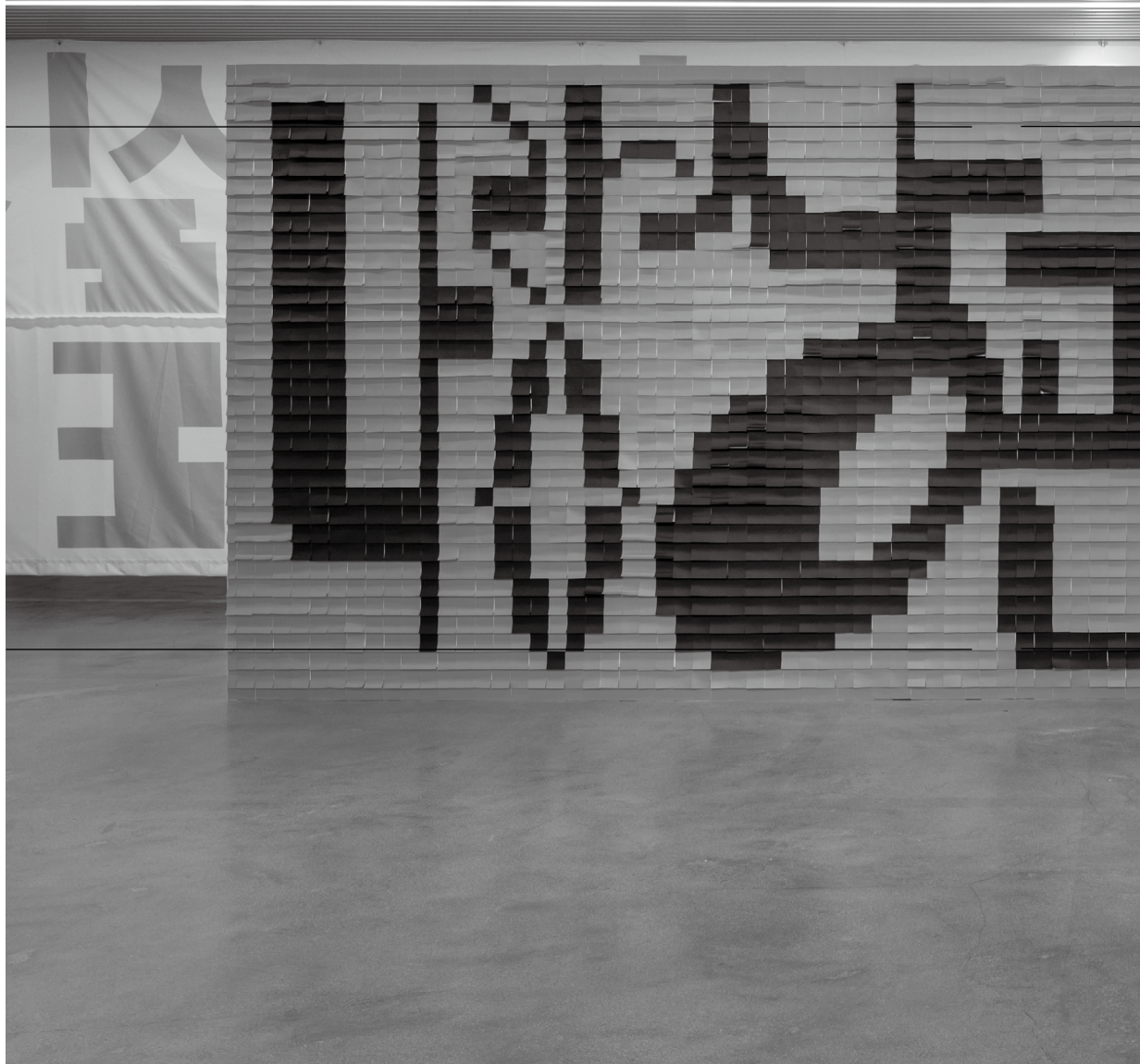
설치는 자신의 목소리를 디자인으로 발언하는 발화자로서 진행해 온 기존 프로젝트를 현재 시점으로 소환해 기술적, 물리적 재구성으로 새로운 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섹션이다. 설치는 총 5개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에이징 월드〉에 참여한 〈골든실버타운〉[그림 12]은 유니티와 키오스크를 통해 관람객이 미래 사회에서 맞이할 법한 가상의 실버타운을 소비하는 작품이다. 당시 이 작품의 최종 결과값은 키오스크로 소비한 실버타운의 영수증이다. 이번 전시에서 〈골든실버타운〉은 영수증의 망점을 실크스크린 매체로 유리에 전사함으로써 금속성의 이미지를 조형물로 경험하는 특성을 갖는다. 타이포잔치 2019에서 공개한 〈감정조명기구〉[그림 13]는 당시 외부에 의뢰했던 프로그램 개발을 이번 전시에서 자체 인력으로 소화해 한층 성장한 프로그래밍 기술을 선보인다. 2016년 DDP에서 열린 국제그래픽엔맹(AGI) 행사에 참여한 〈Life in Seoul〉은 서울을 주제로 1970년대부터 2016년까지 거리의 군상을 집약적으로 엮어낸 작품이다. 이번 전시에서 〈Life in Seoul〉은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세 명의 서울시장에 내놓은 정책의 풍경으로, 현재 서울시 슬로건 〈My Soul Seoul〉[그림 14]로 이름을 바꿔 재구성한 작품이다. 2015년 자체 진행한 〈살려야 한다〉[그림 15]는 메르스 사태가 있던 당시 대통령의 미온한 대처를 풍자한 작품이다. 위태로운 한국 사회를 닮은 역삼각형 구조의 목재 조형물은 이번 전시에서 초기 작품 스케치 단계에서 구상했던 비계(scaffold)를 소재로 입체적 구조를 선보인다.

2019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공개한 <빨갱이>[그림 16]는 시대가 지나도 여전히 유효한 이데올로기의 잔상을 사진, 텍스트, 스크린 등 혼합 매체로 구성한 작품이다. 이번 전시에서 <빨갱이>는 고문실을 가득 채운 빨간색 타일과 작품 제목의 중의성을 표현하기 위해 붉은색이 만연한 밀실을 제작해 선보인다. 일상의실천의 첫 자체 프로젝트 <나랑 상관없잖아>[그림 17]는 모든 관계의 절멸은 타인에 대한 배제와 무관심에 있음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 작품이다. 10년의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수많은 재난을 맞이했다. 구의역 김 군과 강남 살인 사건의 피해자 그리고 진도 앞바다와 이태원 골목의 수많은 희생자까지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 피해자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포스트잇과 조화를 건네왔다. 이번 전시에서 <나랑 상관없잖아>는 혐오와 반복, 배제와 갈등이 범람하는 시대에 타인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낳은 실낱같은 희망의 풍경을 포스트잇으로 현재 서점을 재현한다.

#### 4. 실천을 기록하는 태도

다양한 매체를 실천적 태도로 기록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순간의 연속을 의미한다. 불확실한 순간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증언이며, 불확실한 순간을 기록하는 것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매 순간이 과정인 동시에 결과가 된다. 그런 이유로, 실천을 기록하는 태도는 띄어쓰기를 제거해 고유 명사로 이름을 짓는 용기보다 훨씬 막중한 결단과 책임을 수반한다.

<일상의 실천>은 역할과 방법론의 실천이라는 단순한 논리를 전한다. 미지의 영역에서 자신만의 방법론을 탐구해 온 10년의 시간은 전시장에 놓인 저마다 결이 다른 온갖 진열품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것은 진열품의 의미를 넘어 태도의 기록에 가깝다. 실천을 기록하는, 기록을 실천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무궁무진한 미지의 영역을 기대해 본다. ㉞



[그림 17] <나랑 상관없잖아>

